

시조와 전통 춤사위의 어울림



삼례문화예술촌서 18일 '시조낭송과 춤의 만남' 콘서트 개최

원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아트네트웍스(주) 심가영·심가희 대표는 오는 18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이선녀 시조 시인과 두 댄스 무용단 (Do Dance 대표 홍화영)을 초청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시조낭송과 춤의 만남'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궁중 복식에 오색구슬로 장식한 화려한 화관을 쓰고 추는 화관무 춤사위가 우리 민족의 고유 정형시인 시조와 어울린 새로운 장르의 이색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상처도 보듬는 의미가 더해져 잔잔한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에서 시조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녀(49) 시인은 늦가이로 문단에 데뷔해 시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감성 애틀리티어로 알려져 있다.

이선녀 시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상처를 큰 울림으로 다가서기 위해 한국의 고유 정형시인 시조로 표현해 봤다"고 강조하고 "이번 공연을 기회로 시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과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대해본다"며 시조사랑을 드러냈다.

또한, 2007년 창단된 두 댄스 무용단은 무용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퓨전댄스단체로 알려져 있다.

두 댄스 무용단 홍화영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기리며 여러 장르의 춤이 어울린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했다"며 "전승과 계승에 머물러 대중과의 호흡이 미진한 것 보다는 대중의 눈에서 같이 나누는 문화를 정착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가영·심가희 아트네트웍스(주) 공동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차원에서 펼쳐지는 시조낭송과 춤의 색다른 만남이다"로 "민족의 정형시인 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선녀 시인을 초대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목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춤의 대중화를 위해 창작작품에 앞장서는 홍화영 대표를 초대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공연을 준비하겠다"며 관객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원주=이종복기자

순창군립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인간과 전쟁' 개강

순창군립도서관이 지난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2019년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전국 1,024곳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 80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응모기관 심사평가에서 순창군립도서관이 전체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순창군립도서관은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순창군의 '인문독서문화'를 심화·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도 사업에 선정된 것은 문화와 철학, 역사 및 관련 학문이 융합된 통섭형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온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인간과 전쟁, 동서양 전쟁사'를 주제로 '전쟁'이라는 '사실'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조명해 볼 계획이다.

특히, 우리 민족의 최대 상흔인 한국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순창의 화문산 전투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순창의 과거이며 미래로서 의미가 매우 깊다.

/순창=이영원기자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사학과 이용재 교수가 서양문명과 전쟁을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 6월 11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후 한국사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윤상원 교수가 강의하며, 7월 16일에는 화문산 전투 참가자인 임병구 씨가 강의한다.

7월말부터는 전북대학교 황갑연 교수가 중국의 전쟁과 문명의 교류에 대한 강의를 이어오다가 오는 8월 20일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모든 강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립도서관(063-650-56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소리축제, 아시아 소리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관련 기관의 추천 음악인 환영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아시아 소리 프로젝트 2019' 참가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가 지닌 전통음악의 예술적 가치와 다양성을 공유하고 아시아 전통 음악가들에게 작품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통음악 창작 레지던시 사업이다.

앞서 소리축제는 지난해 이 사업에 최초 선정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사업에 다시 선정됐다.

신청 자격은 몽골·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국적의 전통 관악·현악·타악기 연주자, 아르메니아 국적의 두둑 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1975년 이상 1999년 이하 출생자로 5년 이상 전문 음악인으로 활동해 온 뮤지션을 선발한다. 편·작곡이 가능하며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영어 또는 한국어 소통 가능자를 우대하며, 정부 기관 등 관련 기관의 추천 음악인을 환영한다.

참가자 선정은 오는 6월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로 결정되며, 최종 선정된 음악가들은 8월부터 약 3개월간 전주 지역에 거주하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된다.

이들은 공동작품 제작, 한국문화체험 및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특히 공동 제작한 작품은 지역 전통음악가들과 합



지난해 열린 소리축제 현장 사진.

계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해 소리축제에서 초연할 예정이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아시아 지역 예술인들의 기량이 성장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음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리축제가 아시아 지역 전통음악 예술교류의 거

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ni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063-252-8356)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한반도 첫수도로 가는 시간여행 프로그램인 전주MBC전라도사투리 경연대회가 최근 고창읍 성 앞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고창예총 주최 전주MBC 주관으로 열렸다.

소소한 일상을 맛깔 나는 사투리로!

고창서 전라도사투리 경연대회 열려 큰 호응

한반도 첫수도로 가는 시간여행 프로그램인 전주MBC전라도사투리 경연대회가 최근 고창읍성 앞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고창예총(회장 박종은)주최 전주MBC주관으로 열렸다.

사투리는 '흔스럽고 품위 없는 말'에서 지역고유의 정서와 문화 역사를 담고 있는 아끼고 보존해야하는 아름다운 말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쇠매, 살강, 정지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라도의 젊은 세대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들도 펼쳐졌다. 70대 할머니의 사투리 이야기를 사투리로 펼쳐내자 나이 지극한 세대들은 격하게 동감하면 그때는 그랬지 하며 추억에 감기

고, 저게 무슨 소리아 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었다. 또한 국악신동 김태운양의 사투리 버전 흥보가, 숲꾼남편 이야기 등 참가자들의 소소한 일상을 맛깔 나는 전라도 사투리로 풀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별공연으로 경상도 사투리 대회 우승자 임무창씨와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회 대상 오점순씨의 영호남의 사투리 대결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오점순씨는 "사투리는 그 지방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담겨있는 아끼고 보존해야 할 지역문화"라며 "학문적으로 연구해 기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